[Oh! 크리에이터] #233 작가 최병훈 vol.5 무형의 마음을 이루는 균형점

디자인프레스 · 2021. 10. 8. 11:00

'Oh! 크리에이터'는 네이버 디자인이 동시대 주목할 만한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콘텐츠입니다.

작가 최병훈 다섯 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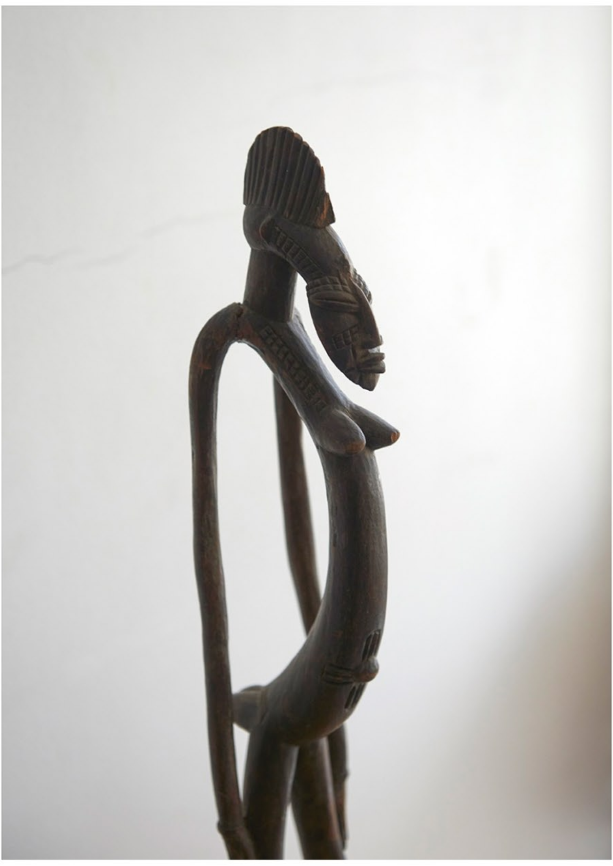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끊임없이 확인한다"

초기작에서는 나무를 주재료로 다룬 최병훈 작가는 이후 대리석, 화강암을 비롯한 석재와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질감과 효과의 대비를 통해 극적인 긴장감을 통한 조각적인 아트 퍼니처를 디자인해 왔다. 또한 그는 높은 안목을 가진 아트 퍼니처 컬렉터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과 자신의 것을 나란히 놓고 끝없이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확인하는 그는 스스로를 '저울질'하는 냉정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 ©designpress

최병훈
40여 년 동안 기능성, 장식성에 머물러왔던 한국 가구에 새로운 혁신을 불어넣어온 최병훈 작가는, 가구가 가진 기능성과 공예성에 한국적 미의식을 부여해 1980년대부터 새로운 '아트 퍼니처' 영역을 개척해왔다. 가구뿐 아니라 조각까지 폭넓은 창작활동을 펼쳐온 작가는, 돌의 자연미와 나무의 본질을 주요한 소재로 다루며 도(道)와 선(善)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작품을 구현하고 있다. 뉴욕과 파리의 갤러리에서 한국 디자인을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로 중요한 개인전을 다수 개최해왔으며, 파리 라파누아 다운타운 갤러리, 뉴욕 프리드만 벤다 갤러리 등 세계적인 갤러리들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뉴욕현대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휴스턴미술관, 파리 장식미술관, 홍콩 M+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9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목조형가구학과 교수로 부임해 30여 년 간 가구 디자인 인재 양성에 힘써온 작가는 정년을 맞아 은퇴한 이후 더욱 왕성한 창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웹사이트

2015년 〈코리아 나우KOREA NOW!〉전에 출품된 'afterimage 08-305'를 본 즉시 영구 소장을 결정한 파리장식미술관 올리비에 가베 관장이 "한마디로 최병훈의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세련된 자세를 취한 채 오랫동안 숙고하고 상상하는 공간을 허락한다. 한 번도 균형감이 깨지는 적이 없이 안정감을 선사한다. 그의 작품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절제되어 있다"고 했다. 글로벌 미술계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한 최병훈 작가의 작품은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를 비롯해 기업, 개인에게 소장되어 있다. 작가 역시 높은 안목을 가진 컬렉터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아트 퍼니처 거장들의 작품 중에서도 '고유한 문화적 특징'이 돋보이는 작품을 수집해온 작가는 20대에 여행한 마야, 잉카, 아프리카, 네팔 등에서 '원시미술'과 조우하며 '원시성'의 미학에 눈을 떴다. 그것들을 곁에 두고 보며 현대의 물질문화와 괴리되어 가는 자연의 가치에 대하여 고민했고,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요즘, 작가는 "모든 것은 일 획을 긋는 데서 세워졌고, 일 획을 그리는 것은 만 획의 근본이고, 만상의 근원이 된다"는 일획론의 철학을 다시 곱씹는다. 지난 6월, 부산 조현화랑에서 개인전 〈침묵의 자리〉를 치르며 작가는 공간에 여백을 넓게 두고 '한 점' 조각들을 설치했다. 장식과 잉여와 과잉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던지는 웅숭깊은 '한 마디'이다. 더욱 묵직해진 최병훈 작가의 '자기 성찰'은 올해 11월 예정되어 있는 가나아트센터 개인전 〈침묵의 메시지〉로 이어진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자기 세계'에 들여놓아온 것들로부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대를 초월한 미감을 찾아온 최병훈 작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작가적 정체성'을 찾는 근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designpress

40년도 넘게 애지중지 해온 컬렉션 가운데 하나인 세네갈 원시미술 조각이 있어요. 작가님 작품에 중요한 키워드인 원시성과 현대성이 무언지 한눈에 보여주네요.
현대미술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없는 작품이에요. 1970년대 후반에 사 왔는데, 저런 것들을 자꾸 눈에 넣고 보면서 내적으로 흡입하는 '미적 경험'이 쌓여서 오늘에 이르렀다고요. 당장 오늘 내가 본 것을 다음 날 무엇으로 표현해 내지는 못해요. 여러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야 몇 십 년 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터져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술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부단히 쌓아가는 속에서 언젠가 기회가 맞아지면 박서보 선생처럼 '빅뱅'이 일어나죠.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힘들고 지난한 젊은 시기를 이겨내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자기 세계가 확고하지 않으면 더 힘들지요. 고시공부하듯 승부하는 일과는 다르다고요. 평생을 건 승부의 시간이죠. 그러다 결국 살아남으면 작가로서 박수를 받게 되는데, 지금 단색화 작가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 세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변하면서 비로소 이 시대에 높이 평가를 받고 있지요. 박서보 선생 어록 중에 내 가슴에 크게 닿는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옳았다."

소름 돋았어요. 두 분께서는 홍익대학교에서 교수로 비슷한 시기에 재직하셨지요.
스스로 인고의 세월을 유지할 수 있었던 판단에 대한 모든 표현이 "내가 옳았다"라는 한 마디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것이 곧 작가 정신이에요. 현대미술은 단순히 손재주로 얘기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기 철학과 확고한 신념이 수반되어야 하고, 현대미술의 흐름에 대한 자기의 촉도 있어야 해요. 박서보 선생은 굉장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역시 어느 정도 두뇌가 있어야 직시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술이 감정팔이만 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designpress

예술가에게도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지요.
절대적으로요. 그 과정에 자기 공부도 지속되어야 해요. 시대가 작가에게 와주는 '운'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스스로 그것을 향해 갔기 때문에 딱 만나는 지점이 생기고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되는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흔의 연세이지만 엊그제 개인전을 또 오픈한 박서보 선생 같은 분이 미술계에 있어서 그 밑에 또 훌륭한 후배 작가들이 탄생해요. '아! 되는구나!' 하는 선례가 있어야 용기를 내서 나아가죠. 그것이 문화의 선배 역할이에요. 그런 분으로 인해서 한국현대미술 분야가 성장할 수 있고, 세계미술시장에서 한국현대미술의 위상도 올라가고요.

오래 몸담아온 홍익대학교 교수 직을 내려놓고 은퇴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은퇴하면서 많은 미대 교수들이 인생을 정리하듯 작품집을 내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나 싶어서. 이제 또 다른 시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예요.

"내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는 '균형'이다. 균형은 동양의 음양사상을 바탕으로 양감과 음감 사이의 장력이며, 우주 조화의 원리이다." ©designpress

"붓을 다루는 행위는 마음을 수양하고 내면의 혼란을 비워내어 평정에 도달하는 도의 상태에 이르려는 몸짓이다"고 얘기하신 바 있어요. 오늘 작업실에서 먹 드로잉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두 개의 물체가 쌓아지는 형식이었어요. 각기 다른 물성을 결합시키는 것. 소재와 질감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만나서 표현되는 상반된 조화로움을 어떻게 콘셉트 드로잉으로 발전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designpress

작가님만의 생각 지도라고 불러도 좋을 '책장'에는 가구 히스토리와 관련된 책들 외에도 동서양 철학에 대한 책들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네요.
필요한 책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칸칸이 주제별로 책을 묶어두었는데, 책을 열심히 봐온 이유가 있어요. 파리, 작가에게 제1 생명인 '정체성'을 찾는 공부였어요. 뉴욕에서 전시하면서 "어떻게 그들과 다를 것인가?" 질문하기 시작했고, 동양적인 감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과 또 다른 '한국미' 대해서 알아야 했으니까요. 원문은 〈중국, 서양, 그리고 미학〉인 장파 교수의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은 우리 문화에 영향을 준 중국 문화에 대해 총망라한 책이에요. 서양미술사까지 꿰뚫어 보며 중국과 동양 미학에 대해 다룬 부분이 크게 와닿았어요.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이 책 소개를 많이 했어요. 또 일본과 우리 문화는 무엇이 다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일본 선불교로부터 유래된 미학인 '와비사비'에 대한 책도 많이 찾아 읽었어요.

불완전함의 미학을 나타내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인 '와비사비'는 관념에 가까운 미학이라 말로 표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맞아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웃음) 이 책을 보고 우리 예술학과 교수에게 물은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 미학자 가운데 우리 미술과 서양미술을 비교 분석해 책을 펴낸 사람이 있는가 하고요. 없데요. 예를 들어 율곡의 사상과 칸트의 철학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어떤 사상을 가진 민족인지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이론적인 측면이 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답답함을 갖고 있던 가운데 만난 또 한 권의 책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석도화론〉이에요. "애초에 법이 없으며 주체인 내가 한번 그음으로써 모든 법이 생겨난다"는 '일획론'을 다루고 있는데, 포시즌 작업에 큰 영감이 되었어요. 중국의 먹이라는 것은 모노톤이지만 농담의 차이에서 많은 깊이와 형상이 나오잖아요. 이 한 획에서 모든 우주 만물이 시작된다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내 가장 큰 관심은 중국과 일본,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에 있었어요.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좋은 책이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이든 찾아봐요.

©design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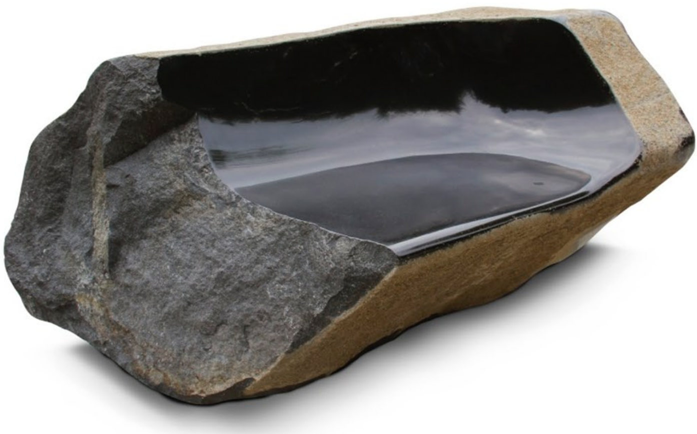
중국이 그린 세계지도는 자신들을 중심에 두었지요. 중화사상의 핵심이 거기에서도 보여요.
맞아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했지만, 손에 기대어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작가들도 시대에 미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져야 해요. 북경대 교수가 쓴 〈미학으로 동양 인문학을 꿰뚫다〉에도 도움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작업실 곳곳에 놓인 '흡입'의 대상 가운데 특이한 몇 가지가 눈에 띄어요. 저울도 그 가운데 하나고요.
골동품 상에 가서도 왜인지 모르게 저울이나 천칭, 스케일 자, 줄자와 같은 측량 도구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중에 정말 특별한 유물도 하나 있어요. 한의사셨던 아버지께서 쓰시던 저울이에요. 약재 무게를 달아서 사용하던 것이에요. 내 작품에서도 드러나듯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상적으로도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중용을 좋아해요. 무겁고 가벼운 것, 거칠고 부드러운 것이 시각적으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이 바로 내 작업에 핵심이에요.

‘균형의 미’에 대하여 생각하는 작가가 수집해온 저울 컬렉션. ©designpress

작품도 굉장히 불균형한 것처럼 긴장감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는 반드시 균형이 잡혀 있듯이요.
시각적으로 불균형하지만 물리적인 구조에서는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 놓은 작업이죠. 이러한 작업에서 얘기하는 바는 결국 ‘조화’에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출 때 유기적으로 유지되는 섭리와 같아요. 그런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소재가 ‘돌’이에요. 물성이 가진 무게를 활용해 균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균형의 추가되는 소재로서의 ‘돌’에 매력을 느낀 이유가 또 있으시지요.
수억 년 동안 만들어진 자연 그 자체잖아요. 우주 덩어리.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에는 내 손길을 더하는 작업은, 말하자면 엄청난 세월이 조우하는 일이에요. 작품을 통해 현대와 과거가 조우하는 찰나가 새롭게 탄생되지요. 그런 작업을 요새 많이 해요. 돌 작업도 그렇고, 무언가 균형을 잡는다는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봐왔어요.



육중한 돌을 연마, 가공하는 작업에서 최근 작가는 자연 ‘수석’을 활용한 시리즈에 매진 중이다. 중국의 기암괴석과는 다른 한국적인 형태미를 가진 수석을 활용한다. ‘afterimage of beginning 016-472’, 2016. 1,300×800×640, basalt. © Choi Byung 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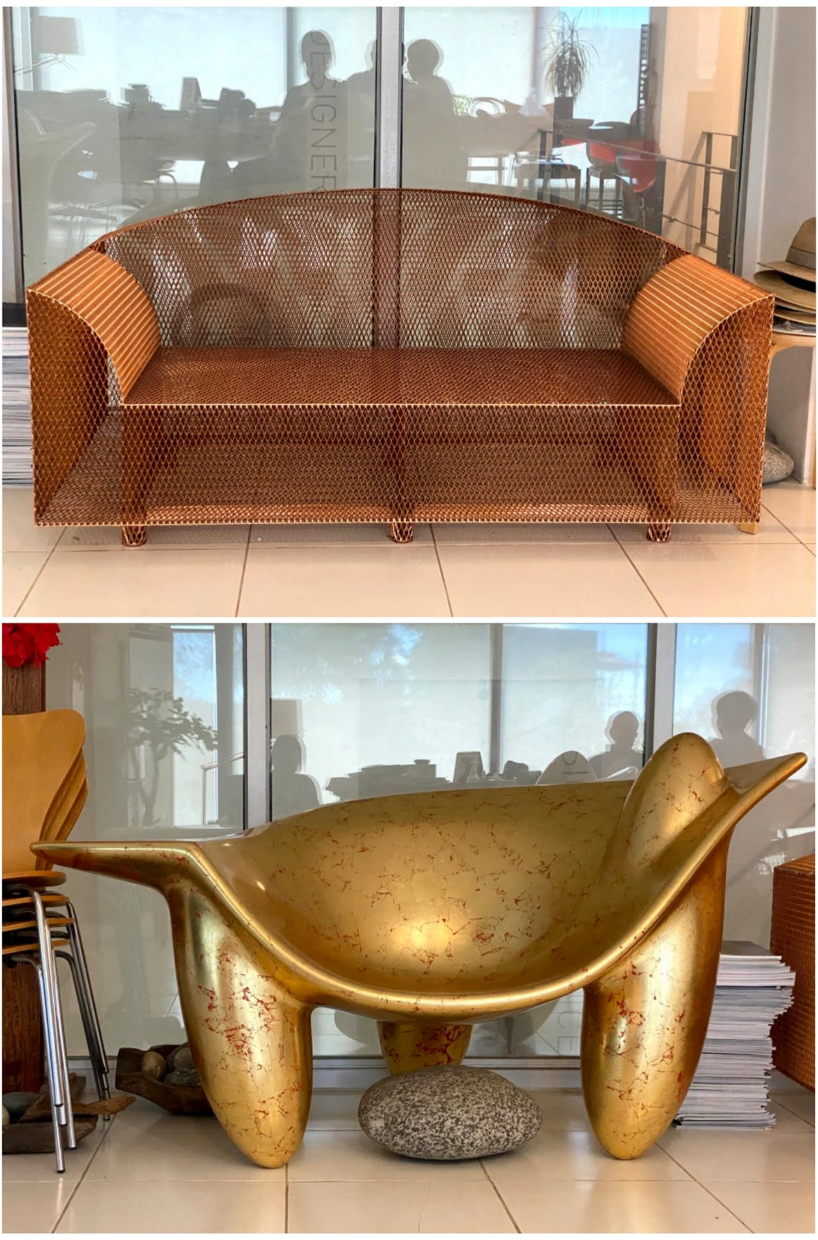
대한민국 1세대 아트 퍼니처 작가가 수집해온 가구들이 작업실 곳곳에 놓여 있어요.
오래전 파리에서 구입해온 임스 라운지체어는 앉아보면 그 가치를 알아요. 여기에서 주로 책을 읽어요. 책장 앞에 놓인 의자는 헬싱키 디자인 대학교수였던 시모 헤이끼라의 밴딩 체어인데, 조립식이에요. 1988년에 세트로 사 와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이곳에 앉아서

는 영화를 봐요. 재료를 절제해 사용하면서도 실용미가 뛰어난 핀란드 가구 디자인의 감각을 보여주는 시모 헤이끼라는 2011 청주공예비엔날레 핀란드관 공간 디렉터를 맡았는데, 그때 내 작업실에 들렀어요. 자신의 가구가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더군요. 직접 사인을 해줬어요. 작업실 입구에 놓은 아트 퍼니처 두 점은 웬델 캐슬과 시로 구라마타 것이에요. 미국 최고의 아트 퍼니처 작가 웬델 캐슬과 1980년대 일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시로 구라마타는 뉴욕 프리드만 벤다 소속 작가들이에요. 거기에서 사 왔어요.

핀란드를 대표하는 가구 디자이너 시모 헤이끼라의 밴딩 체어와 오래전 파리에서 구입해온 임스 라운지체어. 최병훈 작가는 이 의자들에서 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며 지적인 탐구의 시간을 갖는다. ©designpress

작가님의 안목으로 다른 작가 작품을 컬렉션 한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모두 작가들의 대표작이에요. 시로 구라마타의 '달은 정말 높아How High the Moon'는 대나무를 엮어 발이나 다실을 만들었던 일본의 문화적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금속성의 메시를 사용했지만 스틸의 단단함을 아이러니하게도 퀼팅의 부드러움으로 대비시켜 '무형의 투명성'을 표현해 냈지요. 일본의 전형, 와비사비의 아주 현대적인 표현이에요. 30개 에디션 중 하나에요. 그리고 옆에 최병훈! (웃음) 같이 보면서 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나, 짚어보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울을 수집하시나 봐요. 스스로도 끝없이 저울질을 하시잖아요.
자꾸 내 위치를 확인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이 맞는가. 군대에서도 나침반 하나를 갖고 어딘가를 목표로 두고 나아갈 때 계속 맞는 지점인지 확인하듯. 나의 아트퍼니처가 공간에 놓여서 오브제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예술작품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그 경지까지 닿아 있는지 되짚어 봐요.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미국의 아트 퍼니처 디자이너"라 불리는 웬델 캐슬의 대표작 '열반(Nirvana)'과 일본 현대 디자인의 거장 시로 구라마타의 '달은 정말 높아(How High the Moon)'.

작가님이 존경하는 대가, 관심을 두고 보는 동시대 작가, 전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작가는 누구인가 하는 사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존경하는 대가에 안토니 가우디, 이사무 노구치, 마크 로스코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있네요.
현역 작가로는 마이클 하이저, 리차드 세라, 아니쉬 카푸어가 있고, 현역 디자이너로는 안드레아 브란치와 요리스 라만의 작품을 좋아해요. 마크 로스코는 깊은 동양적 정서를 갖고 있고 볼수록 빠져드는 신비감이 있어요. 언젠가 '로스코 채플'에 가보리라 생각했지만 너무 멀어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휴스턴 미술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방문할 수 있었어요. 원형의 채플 내에 마크 로스코 작품들이 있는 가운데 그저 정적만이 흐르는 공간이에요. 미술품으로 이렇게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가, 경탄할 뿐이에요.

아니쉬 카푸어의 대형 설치 작품인 '리바이어던'도 황홀경이었어요. 그랑팔레에서 열린 〈모뉴멘트 2011〉을 직접 보러 파리로 날아갔고, 전시 마지막 날 볼 수 있었어요. 유리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높이 35m, 부피 72000㎥, 무게 10701kg에 육박하는 거대한 작품 안에서 느끼는 순간 대단한 충격을 받았어요. 작품 내부에 서서 좁은 입구를 통과해 들어오는 관람객들 표정을 오래 관찰했어요. 백이면 백 놀라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는 작가의 발상이 통한 거죠.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작가님은 첫 개인전부터 그 틀을 깼고요. 공간을 채우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우는 방식으로 압도감을 이끌어냈어요.
여백이 있어야지요. 채우기보다 비운다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채워본 사람만이 비울 수 있어요.

afterimage of beginning 013-406. 3,100 x 800 x 590. basalt. © Choi Byung Hoon

‘나’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워보지 않은 사람이 가진 빈약한 허기가 있지요.
이 책을 보세요. 안목이 높은 골동품 수집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갤러리스트이기도 한 악셀 베르포트Axel Vervoordt의 〈와비 인스피레이션wabi inspirations〉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존시키는 세계관이 한눈에 드러나요. 대단히 수준 높은 컬렉터이지요.

고급스럽지만 편안하네요. 벨기에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악셀 베르포트는 동양 문화에도 조예가 깊은 컬렉터이지요. 작가님께 기억에 남은 컬렉터는 누구인가요?
파리에 가면 늘 들르는 다운타운 갤러리 프랑소와 사장 집이 있어요. 4개 층 전부가 미술품으로 꽉 차 있는 프라이빗 갤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량생산된 집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 작품도 그냥 미술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의 아파트 문화처럼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소파를 놓고 옆집과 같은 브랜드 가구를 쓰는 모습과 정말 비교되지요. 그들은 전혀 달라요. 공간 하나하나가 자기 세상이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집은, 뉴욕 미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할머니 컬렉터에요. 모마에 많은 작품을 기증하기도 한 분인데,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한 층에 정말 기이한 교과서에 나올법한 작품들만 컬렉션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품과 컬렉션 하는 종류가 달라요.

그런 면에서도 알 수 있듯, 작품이 좋으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왜 나를 몰라주나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미치는 부분을 찾아서 작품을 좋게 만들어야지요. 작품이 좋으면 반드시 시장이 있어요. 우리는 영화를 못 만들지만 어떤 영화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못 그려도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적 경험이 많은 컬렉터들은 작가가 미술관 100곳을 갈 때 1천 곳을 다녀봤다고요.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지적 수준도 높아요. 그러한 미의식을 사진 사람들이 좋은 작품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 지점에서 ‘내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견주어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세계와 정체성을 만들어서 펼치는 일은 백만장자하고도 겨룰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자기 세계를 찾아서 인생을 올인한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률은 없어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해요. 그게 예술가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대박을 터트리고 누군가는 무명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의 길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10월 8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리움미술관 아트숍에서 작가의 대표적인 아트 퍼니처를 아트 상품화한 미니어처 에디션을 판매한다. 각각 50개 한정 제작되는 미니어처 에디션의 모델링 작업도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 완성되었다. ©designpress

1회 개인전 때부터 작품에 페인팅을 했듯 실험적인 시도를 해오셨어요. 1회 전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었나요?
‘아트 퍼니처’의 첫 전시회였다는 점이지요. 1993년으로서는 다양한 물성의 실험도 했는데, 아크릴, 알루미늄에 페인팅, 합판 밴딩 작품을 처음 내놨어요. 1988년에 헬싱키에 다녀와서 1989년 대학에 복귀해 5년 만에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때 새로운 아트 퍼니처에 대해 도전하면서 내 ‘정체성’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 만든 투명 아크릴 작품은 현재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어요.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콤팩트디스크 장 하나에요. 그때 작품에 페인팅을 하면서도 생각했지만, 입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평면 콘셉트 드로잉을 많이 하거든요. 리차드 세라라든가. 꼭 그게 아니라도 내 작품 콘셉트를 평면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휴스턴 미술관 ‘선비의 길’ 조각을 할 때 먹 드로잉으로 제안했지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캔버스에 옮겨보려고 해요.

그가 닿으려는 먼 미래, 미지의 세계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한 작가는 “회고는 먼 일이다” 말한다. ©designpress

기획 | 디자인프레스 편집부
글 | 디자인프레스 객원 기자 장남미
(designpress2016@naver.com)
사진 | 이은숙, 최병훈